

[ 경제 ]

# 광주 아파트 가격 2.4% 올랐다

전국 평균 수준... 단독주택값은 되레 하락

공동혁신도시 영향 나주지역 상승률 최고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택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반면, 광주 등 지방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오름세가 소폭에 그친 데다 단독주택의 가격은 되레 떨어지는 등 주택가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933만가구의 가격을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또 시, 군, 구청은 광주·전남 등 전국의 개별단독주택 401만가구의 가격을 같은 날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4% 올라 2007년(22.7%), 2006년(16.4%)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됐다.

광주는 31만1천984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7.7%)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인천(14.4%) ▲울산(8.0%) ▲경북(5.3%) 등을 크게 밀도는 수준이다.

특히 광주는 단독주택 8만9천가구의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0.09%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세는 평균 집값이 4.38%나 오른 전국의 상황과 대조를 이룬 것으로, 남구와 서구가 각각 1.49%, 1.31% 떨어졌다.

광주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구 삼촌동의 다가구주택(11억6천만원)이

었고, 최저가는 동구 동명동 소재 단독주택(233만원)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은 총 15가구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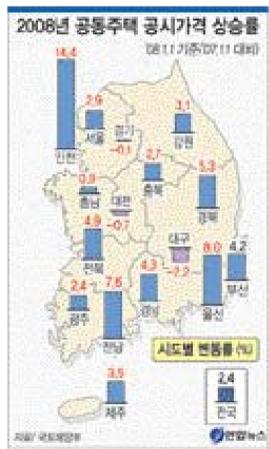
반면 전남은 나주공동혁신도시와 여수엑스포 유치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2년째 강세를 보였다.

올해 전남의 공동주택(24만9천114가구) 공시가격은 7.6%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9.1%)에 이어 2년째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단독주택(35만9천610가구)의 공시가격도 1.78% 올랐다. 시·군별로는 나주시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32% 올라 전남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여수 3.88% ▲합평 3.79% ▲신안 3.66% ▲완도 3.09% ▲담양 2.76% ▲장흥 2.4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목포시와 순천시는 집값이 각각 1.22%, 0.52% 떨어졌다.

전남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은 목포시 유달동의 단독주택(7억9천만원)이



며, 이어 여수시 서교동의 주택(6억9천만원), 순천시 남내동의 주택(6억4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6억원 이상 주택은 4곳으로 파악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계 최소형 컬러 레이저프린터 신제품 'CLP-315K'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모델 'CLP-300'보다 크기를 20% 줄여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 성능 면에서도 파일 크기와 상관없이 흑백은 1분당 16매, 컬러는 4매의 고른 출력 속도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 강만수 재정부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치사를 통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과약물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세원 투명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970년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도입으로 세제의 기본골격이 갖춰진 이후 단

기적·부분적인 세제 개편이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조세원리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가세와 관련, 최근 당정부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신청한 52개 생필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었으나 재정부부는 세수 감소 폭이 크다고 반대를 대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당정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조세감면과 일몰 규정을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재검토하고 ‘국세감면 한도제’ 등 조세감면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투자위험 안알리면 증권사도 책임”

법원 판결... 증권업계 긴장  
투자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투자위험을 알고서도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급격한 주시폭락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증권사의 미수채권에 대해 거래당사자인 일반투자자뿐 아니라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판결로 증권업계 긴장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재판장 박형명 부장판사)는 우리투자증권이 “투보 주식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미결제 금액을 갚으라”며 일반투자자인 김모(35·여), 신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7억여 원의 미수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수료를 받고 주시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집단인 증권사는 늘 시장 상황을 살펴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 투자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투보 주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6년 11월 금융감독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보 주시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원고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2007년 4월 16일 이후에야 투자자들의 증거금 비율을 40%에서 100%로 뒤늦게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시매매를 통한 투자에 따른 손실 부담은 결론을 결정하는 투자자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며 “증권사가 증권거래를 돕는 보조적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업계는 주시거래 매매대금 미수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중개인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유로 증권사에 책임을 물린 것을 ‘매우 이례적인 일’으로 받아들이며 현재 진행 중인 투보 관련 소송들과 향후 진행될 유사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내년부터 해외 취업연수자 등 포함  
정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취업연수자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 봉사자 2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노동부장관 주제로 경제5단체 부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외교부상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관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해외 구인요구를 적극 발굴하고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에 필요한 언어를 익히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 취업연수 인원을 내년부터는 현재 수준의 2배인 연간 5천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매년 700명의 건설 전문인력을 건설관련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해외에 파견해 연수를 받게 할 방침이다.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인턴제도는 1년 400명 수준에서 800명 이상으로 확대되며 4년제 대학생을 위한 해외 인턴제도도 신설된다. 무역 전문인력 양성 인턴십 프로그램도 연간 1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해외공관 파견 인턴십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연간 200명 규모로 본격 시행된다. /연합뉴스

## 종부세 대상 주택 처음으로 감소

## 이건희 회장 자택 96억 가장 비싸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가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이 처음으로 줄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견희 삼성 회장의 자택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평균 2.4%에 그쳤다.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상승률은 2.8%로 국민은행의 지난해 집값 상승률(3.1%)을 밑돌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고가나 고급 주택은 떨어진 반면 저가나 소형

주택은 많이 오르는 등 지난해와 대조를 이뤘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18.1%), 도봉구(14.2%) 등 강남지역과 관악구(10.9%) 등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가아파트의 집값 하락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처음으로 줄었다. 올해 전국의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8만6천536가구로 1년새 1만5천421가구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1가구 늘어난

20만4천210가구에 달한 반면 경기도는 1만9천767가구가 줄어든 4만9천467가구가 됐다.

한편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은 올해도 이견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의 자택은 우리나라의 총 주택 1천353만가구를 통틀어 공시가격이 가장 높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에서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연립주택 ‘트라움 하우스’ 273.6㎡형의 집값이 50억4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증권사 작년 순이익 4조4천억 사상최대

증권사들이 2007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치인 4조4천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3월) 전체 증권사(54개사)의 영업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총 4조4천29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8천289억원(70.3%) 증가했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2005회계연도(3조7천147억원)보다 7천152억원(19.3%)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7.0%로 전년보다 4.5%포인트 높아졌으나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종전 최고치인 2005회계연도의 20.9%보다는 낮았다.

수탁수수료와 펀드판매 수수료가 각각 6조6천136억원, 1조1천163억원으로 58.6%, 42.3% 증가했으며 금융수지와 자기매매수지도 각각 2조2천354억원, 7천148억원으로 46.6%, 57.6% 늘어났다. 분기별 순이익은 1·4분기와 2·4분기에는 평균 1조3천억원 수준이었으나 3·4분기와 4·4분기에는 각각 1조원, 8천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 은행 여·수신 금리 하락세 지속

韓銀 3월중 동향 발표... 예금금리 0.07%P ↓

은행의 여·수신 금리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신규 취급액)는 연 5.33%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 올해 1월 연 6.

01%로 정점을 찍은 뒤 2월에는 연 5.40%로 0.61%포인트나 급락했으며 3월에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예금금리가 하락한 것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은행들이 금리를 하향 조정한 데다 자금 사정에 여유가 생긴 은행들이 환원금 취급을 종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 6.0% 이상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비중이 올해 1월에는 54.1%에 이르렀으나 두달 만인 지난달 3.4%로 낮아졌으며 연 5.0~6.0% 이하 정기예금 비중은 75.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월 대출 평균 금리도 연 6.90%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6.89%로 0.06%포인트 하락했고 기업대출 금리도 0.01% 포인트 떨어진 연 6.92%를 기록했으나 공공·기타대출 금리가 6.21%로 0.99%포인트 급등했다. /연합뉴스

## 증권사 배불린 고객예탁금

## 5년간 운용수익 2조원 행거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5년 동안 주식투자자들의 예비자금인 고객예탁금에서 발생한 2조원대의 운용수익을 행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

용은 200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연평균 12조원 이상의 고객예탁금을 운용해 신박수수(0.05%)를 제외한 운용수익 약 2조7천600억원을 증권사에 돌려줬으나 증권사들은 이중 일부만 고

객에게 이윤로 명목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를 고스란히 주머니에 챙겼다.

증권금융은 국내 29개 증권사로부터 고객예탁금의 운용을 위탁 받아 국공채와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권(CD),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 주로 안전자산과 단기상품에 투자해 연 환산 기준 4~5% 수준의 운용수익을 내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예탁금 운용수익률이 3~4%대에 그쳤지만 2006년 이후에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4~5%대로 높아졌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1% 미만의 예탁금 이용료만 지급했다.

3월 결산법인인 국내 5대 상장 증권사(매출액 기준)들은 2006회계연도(2006.4~2007.3) 말 기준 고객예탁금 잔고에 총 6조3천300억원이지만 고객에게 지불한 이용료는 560억원에 불과, 고객입장에서 보면 예탁금 평균 수익률은 0.88%에 그친 셈이다.

최근 5년 동안 고객예탁금에서 발생한 2조7천600억원대 운용수익 중 5대 증권사의 평균 고객 수익률(0.88%)을 적용할 경우, 고객에게 돌아간 돈은 5천600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사들이 전체 예탁금 운용수익의 80%에 달하는 2조2천억원을 챙겼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금호생명	금호생명 직영 광주TM지점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5/01	062-360-5201
㈜로지시스	[광주]현금송축경비지도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1	02-2125-6324
인어정밀(주)	지재구매관리, 생산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03	062-954-1050
포토양주	포토삽작업, 촬영보조(내근제)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3	062-222-0945
㈜엘시티	송장기, 엘리베이터 A/S영업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3	062-374-1122
㈜시카프관경개발	[특1급 리마더]플러자 광주호철) 각 분야별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6	062-717-7000
㈜위드커뮤니케이션	삼성전자 서비스 고객센터 운영요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6	062-250-3500
인원산업(주)	경리사원	고졸/경력1년	1200~1400	05/06	062-655-4840
㈜동양라이드	냉장고용 슬라이드 레일 생산관리 경력직	초대졸/경력5년	2800~3000	05/07	062-953-5600
대한인원진진연구원	광주지사 진단부 연구원 신입 및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07	062-682-0741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홍보담당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9	062-975-7028
세계식품광주지점	머거분 광주지점 경리직원	고졸/경력1년	1200~1400	05/09	011-9619-6853
가나에드컴	일라스트 / 캐드 / 코플드로우 (레이저.CNC 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0	062-228-8455
신원전자정밀(주)	품질관리 기술자 경력직/경리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10	062-719-77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